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에서 맨발로 산책 어떠세요?”



가로수길에 길이 2.1km·폭 2.0m 흙길 조성

방문객 위해 발 씻는 곳 등 편의시설 추가 예정

담양군이 맨발 걷기 운동의 전국적 유행에 동참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을 조성해 군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름다운 길로, 가로수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 생태공원, 예

코센터, 어린이프로방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갖춰져 있다.

현재 길이 2.1km, 폭 2.0m 규모의 마사토(굵은 모래) 흙길을 조성했으며, 맨발 걷기에 나서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 씻는 곳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맨발 걷기는 심뇌혈관 기능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면역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메타세쿼이아길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완비해 전국적인 맨발 걷기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농촌 맞춤형 파티플래너 양성과정 운영

매주 토요일에 총 6회 진행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이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6일부터 ‘2023년 찾아가는 파티플래너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티플래너 양성과정’은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에 총 6회 진행되며, (사)한국

파티이벤트협회의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 과정은 최근의 트렌드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고모임의 기획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파티의 기본개념, 기획 및 사례 연구를 포함한 이론교육과 함께 파티 주제에 따른 테이블 연출, 플로리스트 활동, 케이터링 등 다양한 실습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연합페스티벌 현장에서의 준비와 참여 경험을 얻게 되며, 파티플래너 2급 전문자격증 취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농촌 지역에서도 파티와 이벤트 관련 산업 및 전문직업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티플래너 교육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재단만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구례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구례군은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례군이 직면한 과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황 교수는 구례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투자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개개인도 구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구례를 만들 핵심 주체는 주민이며 관광객 유치에 앞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개개인도 내가 구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구례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보호장구 착용법·구조장비 사용법·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화순군은 지난 25일 밀폐공간 질식사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춘양정수장에서 화순소방서와 협력하여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질식사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조와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5명을 비롯한 화순소방서 직원 6명이 참여하였으며, 보호장구 착용법 및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교육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계기관 합동훈련으로 안전의식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밀폐공간 질식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질식사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항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9월 1일 나주콜버스, 나주시 대중교통 대전환 스타트 끊는다

노선·시간표 관계없이 앱, 콜센터 호출 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운행

나주시가 빛가람동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나주콜버스’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9월 1일 나주콜버스에 이어 10월 2일부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과 주요 거점만 빠르게 운행하는 ‘급행버스’가 새롭게 개편·도입될 예정이다.

노선 개편은 당초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내·마을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행 시간 점검, 승강장 시설 정비, 변경된 노선·시간표 홍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나주콜버스를 제외하고 한 달 연기했다.

이에 따라 10월 운병대 시장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두고 역점 추진했던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전망이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기치로 대중교통 운수회사 보조금은 줄이고 시민의 이용 편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

역에 착수, 11~12월 시민 의견접수(196건)를 거쳐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마을택시, 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나주콜버스 노선체계와 기존 100원 택시 지원 확대 등을 새롭게 발굴·개편했다.

또 올해 6월 시민설명회 7월 읍·면·동 20곳 순회 설명회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 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공유 절차를 거쳤다.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의 스타트는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나주콜버스’가 끊는다.

시는 31일 빛가람전망대 주차장 일원에서 개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나주콜버스는 9월 1일부터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스마트폰 앱(바로DRT) 또는 콜센터(1533-5015)를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원하는 목적지(승강장)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한다.

운병대 시장은 지난 25일 한전KDN사거리에서 직원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주콜버스 거리 홍보전(사진)을 갖기도 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